

금융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정 성 미*

I. 머리말

2000년 중후반 내내 50%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담보상태를 보이던 여성 고용률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감소세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취업자 증가도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성 노동력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수준에서 총량적 수준은 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여성의 고학력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만혼에 따른 미혼의 증가와 출산을 감소, 맞벌이에 대한 인식변화 등 여성 노동시장의 내부구성이 상당히 변화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전히 추가 고용률 상승에의 여력이 아직 남아 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며 여성 노동시장의 내부는 위기 이전의 양상과는 달리 상당한 변화를 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 고용률 증가의 추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며 여성 노동시장의 내부변화는 위기 이전의 양상과는 상당히 다르게 변화했을 것이다. 따라서 분석시기를 국제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주된 변화에 인적특성은 어떤 영향을 미쳤고, 부문별 특징은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간별로 임금수준별 일자리 변동을 분석해 늘어나거나 감소한 일자리 변화를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mjung@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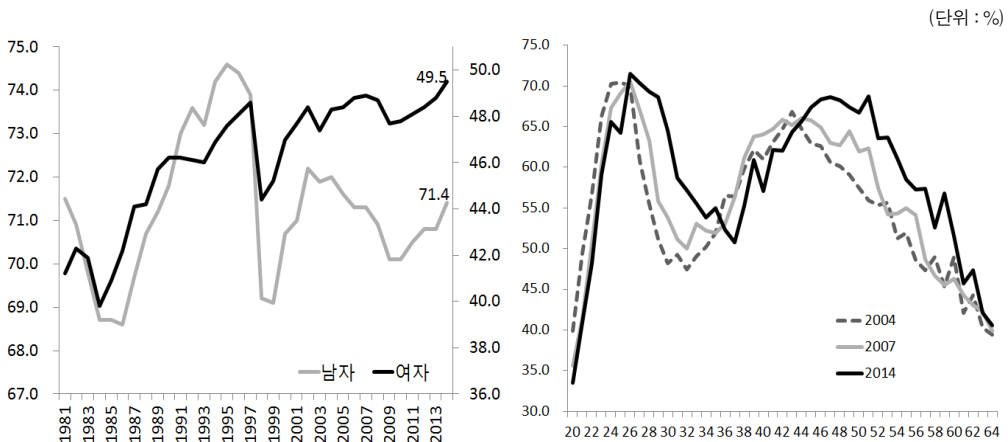
II. 특성별 여성 고용률의 변화

1. 여성 고용률 변화의 연령별 특징

성별 고용률 장기추세는 1980년 중반 이후 남녀 모두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급감하였다(그림 1 왼쪽 참조). 이후 성별로 회복의 양상이 다른데, 남성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2000대 초까지 가파른 상승을 했지만, 이후 추세적 감소를 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반면 여성은 외환위기 이전 최고치였던 48.6%를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48.9%로 회복하였고, 위기 이후 소폭 감소했지만 최근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며 2014년 49.5%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취업자는 여성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여성의 경우 핵심연령층이 결혼 후 출산 및 육아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M자형 노동공급을 그린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림 1 오른쪽]에서 보면 2004년 이후 1세 단위 연령별 고용률의 저점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동시에 고령층의 고용률이 과거에 비해 높이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35~44세 구간은 대체로 최근으로 올수록 고용률이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는 만혼과 출산기피현상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연령대가 뒤로 밀려나면서 일어나는 현상과 고령화 영향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15세 이상 성별 고용률 추이(왼쪽)와 여성의 세부연령별 고용률(오른쪽)



주: 15세 이상 성별 고용률(왼쪽 그림)의 남성은 좌측 축 기준이고, 여성은 우측 축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음의 분석에서는 여성 고용률의 변화를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4년 →2007년과 위기 이후인 2007년 →2014년으로 나누어 두 기간을 비교해 연령별 반응은 어떠했는지 살펴해보도록 한다. <표 1>을 보면, 여성의 경우 전체 고용률은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04년 → 07년과 위기 이후인 07년 →14년 각각 약 0.6%p씩 증가해 증가폭은 비슷했다.

그런데 고용률 증가 변화분은 비슷하지만, 증가한 연령대는 두 시기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기 이전인 04년 →07년에는 15~19세와 20~2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구간에서 고용률이 증가하였지만, 위기 이후인 07년 →14년에는 25~34세와 50대를 중심으로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위기 이전 시기에는 고용률 증감이 일부 연령구간에 몰려 있지 않았고 고루 증가하였지만, 위기 이후 시기에는 일부 연령대를 중심으로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남성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전(04년 →07년)에는 0.7%p 감소하였고, 위기 이후(07년 →14년)에는 0.1%p 증가에 그쳤으며, 위기 이후 남성 고용률 증가를 주도한 연령은 50대와 60~64세 연령대로 주로 고령자 중심으로 고용률이 증가했다.

<표 1> 성별·연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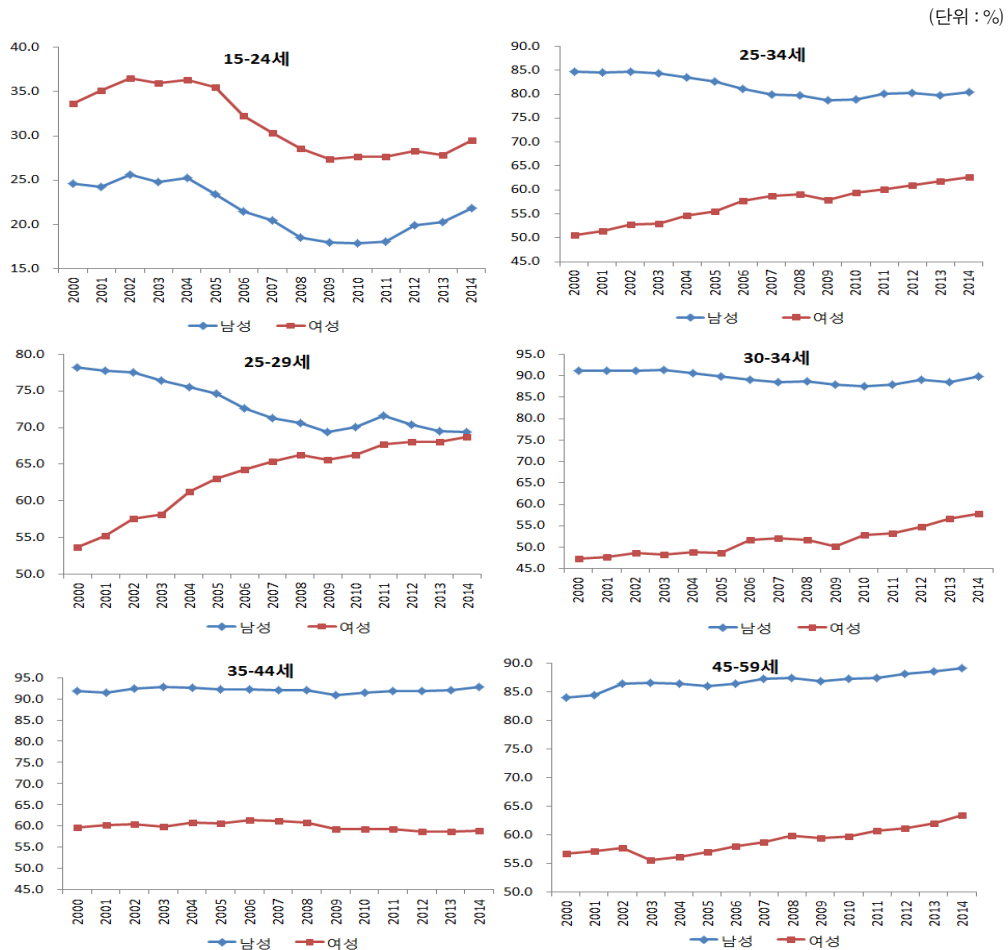
	남 성						여 성					
	2004	2007	2011	2014	04~07 증감	07~14 증감	2004	2007	2011	2014	04~07 증감	07~14 증감
전 체	72.0	71.3	70.5	71.4	-0.7	0.1	48.3	48.9	48.1	49.5	0.6	0.6
15~19세	7.3	5.9	5.5	6.8	-1.4	0.9	9.6	7.4	8.1	8.6	-2.2	1.2
20~24세	46.0	41.7	37.2	39.3	-4.3	-2.4	57.3	52.6	48.2	49.5	-4.7	-3.1
25~29세	75.5	71.3	71.6	69.4	-4.2	-1.9	61.2	65.4	67.8	68.8	4.2	3.4
30~34세	90.5	88.5	87.9	89.8	-2.0	1.3	48.9	52.0	53.2	57.7	3.1	5.7
35~39세	92.6	91.9	91.6	92.1	-0.7	0.2	57.3	57.4	54.1	54.9	0.1	-2.5
40~44세	92.6	92.3	92.2	93.3	-0.3	1.0	64.1	65.2	64.2	62.3	1.1	-2.9
45~49세	90.4	91.1	90.9	92.1	0.7	1.0	61.2	64.1	65.6	68.0	2.9	3.9
50~54세	87.4	87.5	88.2	89.6	0.1	2.1	55.3	58.4	61.2	64.7	3.1	6.3
55~59세	78.3	80.5	81.7	85.1	2.2	4.6	48.6	50.0	53.2	56.6	1.4	6.6
60~64세	63.5	67.5	69.6	71.7	4.0	4.2	43.0	43.2	41.3	45.7	0.2	2.5
65세 이상	40.9	42.5	39.6	42.1	1.6	-0.4	22.1	23.3	21.4	23.5	1.2	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성별 연령구간을 묶어 2000년 이후 장기 추세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그림 2]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연령은 25~29세이다. 이 연령집단은 장기간 여성의 고용률은 빠르게 상승하고, 남성의 고용률은 70% 수준에 머물러 2014년 현재 남녀 고용률 격차는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대인 20대 중후반은 고학력화의 진행과 늦어지는 결혼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여성이 남성의 고용률을 앞지르거나 70%대에서 유사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0~34세는 여성에서 금융위기를 거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핵심연령층인 이 연령대는 결혼 후 임신, 출산, 육아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이 가장 많은 연령으로 고용률 수준이 낮은 편에 속했으나, 2009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며 60%

[그림 2] 연령별·성별 고용률 장기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증가했다. 만혼과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과 더불어 맞벌이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 등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가사나 육아, 보육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인 35~44세 여성의 고용률은 장기시계열로 보았을 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60%를 하회하는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또 남녀 모두 45세 이상 연령구간에서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해 고령화 영향이 반영된 것이 확인되었다.

2. 여성 고용률 변화에 대한 혼인 및 학력 변화의 영향력

지금까지 여성의 연령구간에 따른 고용률 변화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Oaxaca-Blinder 분해방법을 응용해 여성 노동시장의 공급 측 요인으로 볼 수 있는 학력과 혼인상태의 분포변화가 시기에 따라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변동에 대해 갖는 설명력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 분해방식은 기간 간 고용률 변동(격차)에 설명변수들의 분포 변화가 얼마나 설명력을 갖는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표 2>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인 07년 → 14년 간 25~34세 여성 고용률은 약 4.0%p 증가했는데, 이러한 고용률 증가는 학력과 혼인상태의 분포 변화로 약 82.5% 정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혼인상태를 제외한 효과, 즉 미관측 효과인 분포 외 효과는 17.5%가량 고용률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같은 연령대의 위기 이전의 기간(04년 → 07년)의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설명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분포 변화가 고용률 변동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기와 무관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을 25~29세와 30~34세로 나누어 보면, 분포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간과 상관 없이 25~29세의 경우는 학력과 혼인상태의 분포변화가 고용률 변동을 모두 설명하고, 30~34세의 경우는 분포 효과가 약 70% 가까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젊은 여성에게는 학력과 혼인상태가 고용률 변화를 설명하는 매우 핵심적인 요인인 것이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위기 이후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연령인 30~34세의 경우 설명변수로 혼인여부만 넣어도 전체 고용률 변동을 48.5%나 설명했고, 학력변수만 넣어도 30.5%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집단의 고용률 변동에 혼인여부라는 변수 하나만으로도 고용률 변동의 절반 정도나 설명이 가능해 여성에게 혼인상태가 고용률 변화를 설명하는 매우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같은

1) 분포 효과는 설명변수의 각각의 비중 변화가 고용률에 미친 영향을 모두 합친 것을 의미한다. 25~34세의 경우 고용률 변동 4.0%p 중 혼인상태와 학력의 분포만으로 3.3%p(82.5%)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포 외 효과는 설명변수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들, 예를 들어 개인의 취업성향이라든지 기타 알 수 없는 설명변수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들에 의한 변화로 25~34세 고용률 변동 4.0%p 중 0.7%p(17.5%)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30~34세)의 위기 이전 효과보다 위기 이후 설명력이 소폭 증가한 차이는 있지만, 전체의 흐름과 같은 선상에서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포 효과에 의한 설명력이 급격히 작아진다. 금융위기 이후인 07년→14년 간 35~44세의 경우 고용률 격차는 2.3%p 감소했는데, 분포 효과가 14.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5~59세는 고용률 변동을 분포 효과는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분포 외 효과가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사와 육아가 집중되는 30대 중반 이후의 여성에게는 학력과 혼인상태 이외에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짓게 하는 다른 더 주요한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이 노동시장을 참여하는데 인적특성에 주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보다도 혼인과 학력 말고도 자녀변수나 배우자 소득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활용해 분석하였는데, 개인의 인적특성은 가용가능하지만 배우자소득이나 자녀변수는 없어 혼인과 학력만으로 여성 고용률 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만약 이러

〈표 2〉 연령별 여성 고용률 Oaxaca 분해 결과(2004~2007년, 2007~2014년)

		15~24세	25~34세	25~34세		35~44세	45~59세	
				25~29세	30~34세			
2004~2007	2004년 고용률	36.4%	54.6%	61.2%	48.9%	60.8%	56.1%	
	2007년 고용률	30.4%	58.7%	65.4%	52.0%	61.2%	58.7%	
	고용률 격차	-6.0%p	4.1%p	4.1%p	3.2%p	0.4%p	2.6%p	
	분포 효과	전체	-2.1%p (35.0)	3.8%p (92.1)	4.7%p (113.6)	1.9%p (59.6)	-0.6%p (-166.3)	0.0%p (-1.9)
		학력	-2.2%p	0.7%p	1.0%p	0.3%p	-0.9%p	-0.5%p
		혼인상태	0.1%p	3.0%p	3.7%p	1.6%p	0.3%p	0.4%p
	분포 외 효과	-3.9%p (65.0)	0.3%p (7.9)	-0.6%p (-13.6)	1.3%p (40.4)	1.0%p (266.3)	2.6%p (101.9)	
2007~2014	2007년 고용률	30.4%	58.7%	65.4%	52.0%	61.2%	58.7%	
	2014년 고용률	29.5%	62.7%	68.8%	57.7%	58.8%	63.3%	
	고용률 격차	-0.8%p	4.0%p	3.4%p	5.7%p	-2.3%p	4.7%p	
	분포 효과	전체	0.3%p (-33.0)	3.3%p (82.5)	3.6%p (106.0)	3.9%p (68.9)	-0.3%p (14.3)	-0.4%p (-8.6)
		학력	0.3%p	1.5%p	1.3%p	1.3%p	-0.5%p	-0.4%p
		혼인상태	0.0%p	1.8%p	2.3%p	2.6%p	0.2%p	0.0%p
	분포 외 효과	-1.1%p (133.0)	0.7%p (17.5)	-0.2%p (-6.0)	1.8%p (31.1)	-2.0%p (85.7)	5.1%p (108.6)	

주: ()안은 설명정도이고, 각 연령대 안에서 ()안의 합은 100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 변수들이 추가된다면, 30대 중반 이후의 여성 고용률 변동을 분포 효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Ⅲ. 산업별 변동추이

이 장에서는 여성 취업자의 변화를 노동 수요 측면인 산업과 직종의 변동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의 성별·산업별 취업자 추이를 보면,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여성 취업자는 935천 명(9.5%)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남성도 비슷한 증가율인 9.1%를 기록해 1,232천 명 증가했다. 그러나 성별로 각 산업단위 취업자 변화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여성 취업자 가운데 보건 및 사회복지업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이다. 위기 이후(07년 → 14년) 여성 취업자 증가분의 87%에 해당하는 814천 명이 증가했는데,

<표 3> 성별·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

	남 성		여 성	
	2007	2014	2007	2014
전 체	13,607 (100.0)	14,839 (100.0)	9,826 (100.0)	10,761 (100.0)
농림어업	911 (6.7)	837 (5.6)	812 (8.3)	615 (5.7)
광공업	2,722 (20.0)	3,049 (20.5)	1,308 (13.3)	1,294 (12.0)
건설업	1,677 (12.3)	1,645 (11.1)	172 (1.7)	151 (1.4)
도소매음식숙박	2,629 (19.3)	2,857 (19.3)	3,093 (31.5)	3,032 (28.2)
운수업	1,150 (8.5)	1,274 (8.6)	97 (1.0)	133 (1.2)
금융보험	387 (2.8)	408 (2.7)	419 (4.3)	430 (4.0)
부동산임대	334 (2.5)	322 (2.2)	171 (1.7)	186 (1.7)
전문과학	468 (3.4)	693 (4.7)	234 (2.4)	332 (3.1)
사업서비스	560 (4.1)	659 (4.4)	394 (4.0)	521 (4.8)
공공행정	543 (4.0)	603 (4.1)	254 (2.6)	355 (3.3)
교육서비스	578 (4.2)	613 (4.1)	1,162 (11.8)	1,194 (11.1)
보건사회복지	198 (1.5)	337 (2.3)	542 (5.5)	1,356 (12.6)
기타	1,450 (10.7)	1,543 (10.4)	1,169 (11.9)	1,163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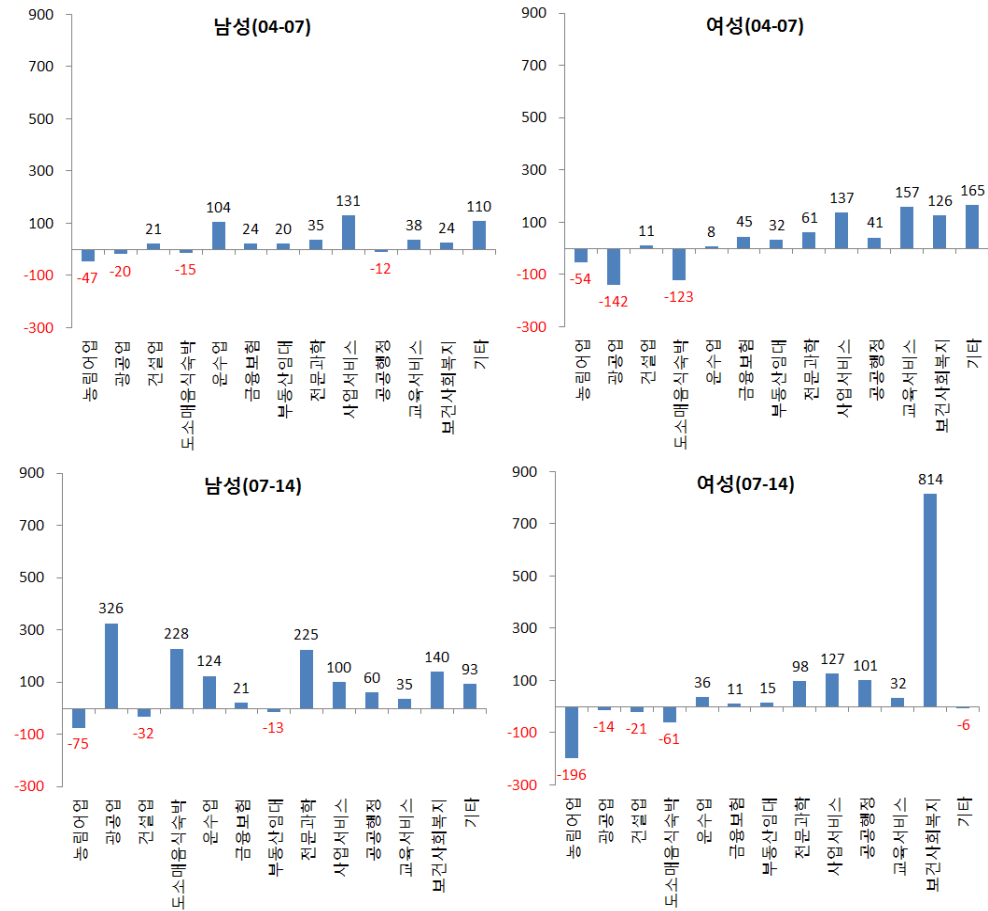
주: 1) 광공업은 제조업과 광업을 포함하고, 기타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2) ()안은 취업자 대비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3] 성별·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2004~2007년, 2007~2014년)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러한 변화는 여성 취업자의 산업 내 구성변화를 가져와 전통적으로 여성 취업자가 대거 몰려 있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비중이 2007년 31.5%에서 2014년 28.2%로 줄어들었고, 5.5%에 불과했던 보건 및 사회복지업이 2014년 12.6%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남성의 산업분포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이렇듯, 일부 산업이 주도해 여성 고용증가를 이끈 것은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변화이며, 위기 이전(04년→07년)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광공업, 농림어업의 감소를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에서 고루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이와 같이 일부 산업에 편중된 취업자 변화가 여성 고용률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산업과 직종을 교차해 분석해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표 4〉 2004~2007년 간 여성 고용률 변화에 산업과 직종이 미친 영향

(단위: %p)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업	기능원	기계 조작	단순 노무	전체
농림어업	0.00	-	-0.01	0.00	0.00	-0.29	-0.01	0.00	-0.11	-0.42
광업	-	0.00	0.00	0.00	-	-	-	-	0.00	0.00
제조업	0.02	0.05	0.01	-0.03	0.00	0.00	-0.46	-0.31	-0.24	-0.96
전기·가스·수도	-	0.00	0.02	0.00	-	-	-	-	0.00	0.03
하수·원료재생 등	-	-	0.01	0.00	-	-	-	-	0.01	0.03
건설업	0.00	0.01	0.02	0.00	-0.01	0.00	0.05	0.00	-0.04	0.03
도소매업	-0.01	-0.07	-0.10	-0.02	-0.71	0.01	0.00	0.00	0.01	-0.90
운수업	0.00	0.00	0.02	0.02	-0.01	-	-	0.02	-0.02	0.02
숙박 및 음식점업	0.01	0.02	0.03	-0.52	0.04	-	0.00	-0.01	0.16	-0.27
출판·영상 등	0.01	-0.04	-0.02	0.00	-0.02	-	0.00	0.01	-0.02	-0.08
금융 및 보험업	0.00	0.03	-0.04	0.00	0.13	-	-	-	0.03	0.16
부동산 및 임대업	-0.01	0.15	0.02	-0.03	0.02	-	0.00	0.00	-0.01	0.14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01	0.11	0.14	0.00	0.00	0.00	0.00	0.01	0.02	0.27
사업서비스	0.01	0.02	0.16	0.05	0.06	-	0.01	0.04	0.28	0.64
공공행정 등	-	0.01	0.11	0.01	-0.01	0.00	0.00	0.00	0.03	0.16
교육서비스	0.01	0.53	0.00	0.00	0.00	-	0.00	0.03	0.05	0.61
보건 및 사회복지업	0.01	0.27	0.05	0.10	-0.01	-	0.01	-0.01	0.12	0.55
예술·스포츠·여가관련	0.00	0.06	0.00	-0.05	0.02	-	-	-	0.01	0.05
협회·단체·수리 등	0.00	0.04	-0.02	0.24	0.02	0.00	0.04	0.02	0.15	0.49
가구내 및 자가	-	0.00	0.00	0.00	0.00	-	-	-	0.16	0.16
국제 및 외국기관	-	0.00	-0.01	0.00	-0.01	-	-	-	0.00	-0.02
전 체	0.05	1.19	0.39	-0.22	-0.50	-0.28	-0.33	-0.20	0.57	0.6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04년 → 07년과 위기 이후인 07년 → 14년 각각 약 0.6%p씩 비슷한 규모로 고용률이 증가했지만, 주되게 증가한 산업 및 직종 분류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표 4>를 보면,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04년 → 07년 고용률은 0.67%p 증가했는데, 주로 사업서비스업(0.64%p), 교육서비스업(0.61%p), 보건 및 사회복지업(0.55%p)의 영향으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0.96%p), 도소매업(-0.9%p), 숙박 및 음식점업(-0.27%p)은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직종별로 보면, 전문가(1.19%p)가 고용률 증가를 이끈 반면,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등 대다수 직종은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국제금융위기를 겪은 후인 07년 → 14년 고용률은 증가 규모는 0.63%p로 위기 전과 비슷했지만, 주되게 영향을 미친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업(3.54%p)으로 압도적으로 강하게 고용률 증가를 이끌었고, 직종으로도 전문가(2.19%p)에서 증가했고, 전문가 가운

〈표 5〉 2007~2014년 간 여성 고용률 변화에 산업과 직종이 미친 영향

(단위: %p)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업	기능원	기계 조작	단순 노무	전체
농림어업	0.00	0.00	0.00	-0.01	0.00	-1.13	0.00	0.00	-0.06	-1.21
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0.01	-0.08	0.11	-0.05	-0.04	0.00	-0.36	0.21	-0.34	-0.56
전기·가스·수도	0.00	0.00	-0.03	-0.01	0.00	0.00	0.00	0.00	0.01	-0.03
하수·원료재생 등	0.01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1
건설업	-0.01	-0.02	0.02	0.00	-0.01	0.00	-0.08	0.00	-0.07	-0.16
도소매업	-0.01	0.04	0.31	-0.03	-0.88	-0.01	0.05	0.00	0.09	-0.45
운수업	0.00	0.00	0.01	0.02	0.03	0.00	0.00	0.00	0.08	0.13
숙박 및 음식점업	-0.01	0.03	-0.02	-1.62	0.34	0.00	0.03	0.00	0.24	-0.99
출판·영상 등	-0.02	0.14	-0.12	0.00	0.04	0.00	0.00	-0.01	0.00	0.02
금융 및 보험업	0.00	0.02	0.02	-0.01	-0.12	0.00	0.00	0.00	-0.02	-0.11
부동산 및 임대업	0.00	-0.05	0.04	-0.04	-0.02	0.00	0.00	0.00	0.08	0.01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00	0.23	0.11	0.03	-0.02	0.00	-0.01	0.01	0.01	0.36
사업서비스	-0.01	0.07	0.15	-0.01	0.10	0.00	0.00	0.01	0.13	0.44
공공행정 등	0.00	0.01	0.18	0.06	0.00	0.00	0.00	0.00	0.11	0.37
교육서비스	-0.01	-0.48	0.20	0.02	-0.01	0.00	0.00	-0.02	0.02	-0.29
보건 및 사회복지업	0.03	2.21	0.20	0.91	0.01	0.00	0.00	0.00	0.17	3.54
예술·스포츠·여가관련	0.00	0.01	0.03	-0.04	-0.03	0.00	0.00	0.00	-0.03	-0.05
협회·단체·수리 등	-0.01	0.05	0.03	0.00	-0.01	0.00	-0.05	-0.01	-0.15	-0.16
가구내 및 자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5	-0.26
국제 및 외국기관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 체	-0.06	2.19	1.27	-0.79	-0.62	-1.14	-0.42	0.19	0.01	0.6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데 보건 및 사회복지업(2.21%p)이 거의 모든 증가를 설명하였다(표 5 참조).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04년→07년에도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 고용의 상당부분을 흡수했던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내수 서비스 부문에서 더 이상 여성고용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전과 달리 위기 이후에는 사무직(1.27%p)도 고용률을 증대시키는 영향을 준 반면, 단순노무직은 고용률 증가에 0.01%p의 영향만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여성 고용률 변화의 대부분을 이끈 보건 및 사회복지업을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고용률이 증가한 연령집단(25~34세(3.99%p), 45~59세(4.65%p), 60세 이상(0.8%p))과 감소한 연령집단(15~24세(-0.84%p), 35~44세(-2.33%p)) 모두 보건 및 사회복지업이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6〉 연령별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영향력(2007년→2014년)

(단위: %p)

	고용률 변화	보건 및 사회복지업	직종별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단순노무
15~24세	-0.84	1.74	1.39	0.31	0.08	-0.06
25~34세	3.99	4.75	4.27	0.42	0.21	-0.16
35~44세	-2.33	5.30	4.86	0.34	0.30	-0.18
45~59세	4.65	4.51	2.19	0.14	2.01	0.02
60세 이상	0.80	2.24	0.12	0.05	1.02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특히 고용률이 크게 감소한 35~44세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고용률을 5.3%p, 15~24세도 1.74%p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했으며, 25~34세는 4.75%p, 45~59세는 4.51%p, 60세 이상은 2.24%p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보건 및 사회복지업을 직종별로 보면, 44세 이하 연령에서는 보건업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에서 고용률이 늘어난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단순노무 중심으로 고용률이 늘어나 같은 보건 및 사회복지업 내에서도 양분된 형태의 일자리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위기 이후 전통적으로 여성 고용증가를 이끌었던 내수 중심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여성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어 여성 고용률을 크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특히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의 증가는 전문가와 사무직 중심에서 증가가 포착되었지만, 고령층에서는 단순노무직으로의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모든 연령집단에서(고용률이 감소한 연령대조차도)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영향력은 크게 증가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사회서비스 부문이 아니었으면 여성취업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률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IV. 임금수준별 여성 일자리변동 특징

금융위기 이전과 달리 위기 이후에 여성의 고용 증가는 일부 산업과 직종에 집중되어 이루어진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러한 변화가 저임금 일자리, 중간일자리, 고임금일자리²⁾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상대적 기준에 따라 시간당임금의 중위값의 2/3 미만을 저임금으로, 3/2 이상을 고임금으로 정의.

〈표 7〉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중

(단위: 천 명, %)

		규 모				비 중		
		전체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전체	2004. 8	14,584	3,835	6,706	4,043	26.3	46.0	27.7
	2007. 8	15,882	4,349	7,055	4,478	27.4	44.4	28.2
	2014. 8	18,776	4,507	9,212	5,056	24.0	49.1	26.9
남성	2004. 8	8,489	1,307	3,999	3,182	15.4	47.1	37.5
	2007. 8	9,235	1,536	4,175	3,524	16.6	45.2	38.2
	2014. 8	10,635	1,556	5,060	4,019	14.6	47.6	37.8
여성	2004. 8	6,096	2,528	2,708	860	41.5	44.4	14.1
	2007. 8	6,647	2,813	2,880	954	42.3	43.3	14.4
	2014. 8	8,141	2,952	4,152	1,038	36.3	51.0	1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표 7〉을 보면, 국제금융위기 이전(04년 → 07년) 중간임금은 46.0% → 44.4%로 감소하였고 고임금과 저임금은 각각 27.7% → 28.2%, 26.3% → 27.4% 증가하였으나, 위기 이후(07년 → 14년)에는 중간임금이 44.4% → 49.1%로 크게 증가한 반면, 고임금과 저임금은 각각 28.2% → 26.9%, 27.4% → 24.0%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관찰되는데, 여성의 경우 국제금융위기 이전 중간임금은 44.4% → 43.3%로 감소하였고 고임금과 저임금은 각각 14.1% → 14.4%, 41.5% → 42.3%로 증가하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중간임금 일자리가 크게 늘어(127만 명 ↑) 43.3% → 51.0%로 증가해 중간임금규모가 전체 여성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선 수준에 이르렀다. 반면 고임금과 저임금은 각각 14.4% → 12.7%, 42.3% → 36.3%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중간임금 일자리 증가를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위기 이후 급증한 상용직은 고임금에서 144천 명, 저임금에서 199천 명 증가에 그쳤으나 중간임금에서 1,354천 명이 증가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8%까지 증가한 것이 매우 큰 특징으로 보인다. 특히 상용직의 중간임금 일자리 증가는 위기 이전에도 포착되던 양상이지만, 위기 이후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모두 중간임금 일자리와 고임금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시직의 경우 위기 이전에는 중간임금 일자리 비중이 42.8% → 37.9%로, 위기 이후에는 37.9% → 35.9%로 줄어들었고, 일용직은 위기 이전에는 중간임금 일자리 비중이 23.2% → 18.0%로, 위기 이후에는 18.0% → 16.0%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표 8〉 여성의 임금수준별·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중

(단위: 천 명, %)

		규 모				비 중		
		전체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상용	2004. 8	2,348	404	1,307	637	17.2	55.7	27.1
	2007. 8	2,839	464	1,629	747	16.3	57.4	26.3
	2014. 8	4,536	663	2,983	890	14.6	65.8	19.6
임시	2004. 8	2,708	1,358	1,160	190	50.2	42.8	7.0
	2007. 8	2,840	1,575	1,077	188	55.5	37.9	6.6
	2014. 8	2,972	1,765	1,068	139	59.4	35.9	4.7
일용	2004. 8	1,040	766	241	33	73.6	23.2	3.2
	2007. 8	968	775	174	20	80.0	18.0	2.0
	2014. 8	633	524	101	8	82.7	16.0	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연령구간별로 보면, 중간임금 일자리는 모든 연령대에서 늘어났으며, 특히 45~59세의 증가규모가 가장 크게(653천 명)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으로 중고령 연령대의 중간임금 일자리 비중은 07년 → 14년에 32.8%에서 46.3%로 증가했다. 이는 위기 이전 시기에 중간임금 일자리 비중이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한편 국제금융위기 이후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던 25~34세는 중간임금 근로자가 215천 명 증가해 2014년 25~34세 임금근로자의 70% 정도로 중간임금 일자리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저임금 일자리는 84천 명 감소하고, 고임금 근로자는 109천 명 감소하였다.

추세적 고용률 감소를 보이고 있는 35~44세는 저임금 일자리가 245천 명 감소한 반면, 중간임금 일자리는 273천 명, 고임금 일자리는 63천 명 증가해 중간임금 일자리 비중이 전체 일자리의 절반이 넘는 수준으로 변해 내부 변화가 있음이 포착되었다.

반면 15~24세는 저임금 일자리는 67천 명 증가하였고 중간임금 일자리는 11천 명 증가에 그쳤고 고임금 일자리는 22천 명 감소했다. 15~24세는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로 최근 취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유일하게 중간임금 일자리 비중이 위기 이전인 04년 → 07년 줄어들었고, 위기 이후인 07년 → 14년에도 줄어들고 있으며, 고임금 비중도 동반 하락해 저임금 일자리 위주로 취업자가 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저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고 있다.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15~24세의 일자리 증가는 주로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주로 핵심연령층이라 보는 25~59세를 중심으로 중간임금 일자리가 흡수되었고, 15~24세에서는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60세 이상의 일자리

〈표 9〉 여성의 임금수준별·연령별 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중

(단위: 천 명, %)

		규 모				비 중		
		전체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15~24세	2004. 8	1,139	474	599	66	41.6	52.6	5.8
	2007. 8	887	399	446	42	45.0	50.3	4.7
	2014. 8	943	466	457	20	49.4	48.5	2.1
25~34세	2004. 8	1,797	433	1,005	358	24.1	55.9	19.9
	2007. 8	1,954	395	1,162	397	20.2	59.5	20.3
	2014. 8	1,976	311	1,377	288	15.7	69.7	14.6
35~44세	2004. 8	1,549	668	589	292	43.1	38.0	18.9
	2007. 8	1,741	732	673	336	42.1	38.6	19.3
	2014. 8	1,832	487	946	399	26.6	51.7	21.8
45~59세	2004. 8	1,283	690	457	136	53.8	35.6	10.6
	2007. 8	1,652	945	542	165	57.2	32.8	10.0
	2014. 8	2,580	1,069	1,195	315	41.5	46.3	12.2
60세 이상	2004. 8	328	262	58	8	79.9	17.7	2.4
	2007. 8	412	341	57	14	82.9	13.8	3.3
	2014. 8	810	619	177	15	76.3	21.8	1.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대부분이 저임금 일자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서비스종사자와 단순노무를 중심으로 한 핵심연령층에서 빠져나온 저임금 일자리가 노동시장 진입연령대와 퇴장연령대에서 흡수된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표 10> 산업별로 보면, 금융위기 이전 시기(04년→07년)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 저임금 일자리가 주로 증가했고, 중간임금 일자리는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 일부 몰려 있었다. 반면 고임금 일자리는 금융 및 보험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일부에서 증가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07년→14년)에는 중간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변화의 추동력은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증가로 전체 중간임금 일자리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 526천 명을 기록한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중간임금 일자리 증가는 보건 및 사회복지업이 아니라도 산업 전반에서 포착된다. 주로 제조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에서 100천 명 이상의 큰 증가를 보였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위기 이전에는 고임금의 일부를 제외한 저임금과 중간임금 일자리 모두 크게 감소했으나, 위기 이후에는 중간임금에서 185천 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도소매업도 중간임금 일자리가

114천 명 증가하였고, 고임금과 저임금은 각각 13천 명 증가하였다.

한편 위기 이전에는 저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한 숙박 및 음식점업이 위기 이후에는 증가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중간임금에서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일자리는 07년 → 14년 간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 276천 명 증가했지만, 위기 이전 저임금 일자리를 주도한 산업들(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서비스업)에서 위기 이후 증가폭이 대폭 감소한 것이 저임금 일자리 증가폭을 크게 둔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11> 직종별로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업이 주되게 포진되어 있는 전문가와 사무직에서 중간임금 일자리가 838천 명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65.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이전에는 주로 저임금 일자리의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에서 증가했는데, 위기 이후에는 증가폭이 크게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저임금 일자리 규모를 줄이는

<표 10> 여성의 임금수준별 · 산업별 임금근로자 증감

(단위: 천 명)

	2004. 8~2007. 8				2007. 8~2014. 8			
	전체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전체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농림어업	-8	-5	-2	-1	-24	-25	2	-0
광업	0	0	1	-0	1	-0	1	0
제조업	-126	-109	-26	9	52	-153	185	20
전기·가스·수도	2	-0	-2	4	1	-1	5	-2
하수·원료재생 등	5	1	4	-0	3	1	1	1
건설업	14	-6	15	5	-26	-27	6	-4
도소매업	-4	19	-19	-3	140	13	114	13
운수업	-7	-4	-5	2	40	8	27	5
숙박 및 음식점업	70	107	-33	-4	10	8	10	-8
출판·영상 등	4	11	-5	-2	5	-3	15	-7
금융 및 보험업	49	12	13	24	21	-11	34	-2
부동산 및 임대업	15	5	12	-3	25	8	14	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54	0	37	18	107	5	71	32
사업서비스	133	73	53	6	114	19	102	-7
공공행정 등	42	16	5	21	112	44	61	8
교육서비스	102	38	66	-2	40	-32	53	19
보건 및 사회복지업	113	42	44	28	809	276	526	6
예술·스포츠·여가관련	16	7	12	-2	2	3	-2	1
협회·단체·수리 등	23	37	-7	-7	127	39	81	8
가구내 및 자가	55	41	12	2	-68	-30	-33	-5
국제 및 외국기관	-2	0	-1	-2	0	-0	-0	1
전 체	551	285	172	94	1,494	139	1,272	8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역할을 하였다. 반면 위기 이후에는 단순노무직의 중간임금 일자리가 123천 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중간임금 일자리의 증가 영향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영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기 이전 시기에는 전문가의 경우 중간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위기 이후 전문가의 저임금 일자리가 92천 명 증가했음에도 중간임금 일자리 증가가 압도적으로 많아 467천 명 증가했다. 한편 사무직은 위기 이후 저임금 일자리는 감소하고 중간임금과 고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늘어난 특징을 보인다.

〈표 11〉 여성의 임금수준별·직종별 임금근로자 증감

(단위: 천 명)

	2004. 8~2007. 8				2007. 8~2014. 8			
	전체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전체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관리직	8	2	6	0	8	0	2	7
전문가	217	34	125	57	597	92	467	39
사무직	133	15	82	36	411	-28	371	68
서비스	37	79	-29	-13	165	53	105	6
판매	69	39	8	22	70	23	88	-41
농어업	11	11	1	0	-22	-23	1	0
기능	-37	-19	-18	0	-47	-51	4	1
조립	-58	-33	-18	-7	101	-19	110	10
단순노무	172	157	17	-2	211	93	123	-5
전 체	551	285	172	94	1,494	139	1,272	8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V. 맺음말

지금까지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과 변화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초점을 맞추어 공급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총량적 여성 고용률은 위기 이전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국제금융위기 이후 여성 고용률 증가의 추동력은 보건 및 사회복지업이 주도하였으며, 그 영향은 매우 압도적으로 나타나 여성 산업분포를 바꿀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률이 감소한 연령대인 35~44세 여성에서조차도 전문가 중심의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변화를 보였다.

한편 금융위기 이전에는 저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여성 고용이 늘어났으나, 금융위기

이후는 보건 및 사회복지업,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서 중간임금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 일자리창출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핵심연령층인 25~49세는 중간임금 일자리로 유입되고 노동시장 진입연령대인 15~24세와 60세 이상 고령층이 저임금 일자리로 유입되는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는 것으로, 핵심연령층의 저임금 일자리를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대거 늘어난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주로 중간임금 일자리와 저임금 일자리에서 늘어났고, 주로 전문가와 사무직 중심의 증가로 포착되었지만, 고령층에서는 단순노무직으로의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여성 취업 동력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간일자리 중심의 사회서비스업의 확대는 앞으로도 여성 일자리 변화와 고용률 증가에 주요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LI**

<참고문헌>

성재민(2011), 「20대 고용률 변화 분석」, 『노동리뷰』 2011년 11월호, pp.76~96.